

민주 '임종석 發' 인적쇄신 바람

정계은퇴, 증진·86그룹에 불동원혜영·백재현 불출마 검토 내각 14명도 불출마 가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철에게걸워 간사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당대표(왼쪽부터)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비공개 설명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더불어민주당 증진들과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에 불동이 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며 '시스템 공천'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정치권 전면엔 인적쇄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마냥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은 인위적인 물갈이와는 거리가 있다"며 "특히, 불출마 입장을 보인 의원들과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의원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30여명은 교체될 수 밖에 없어 용퇴론이 제기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당내에선 5선인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 검토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3선의 백재현 의원 역시 불출마를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이철하·표창원·이유덕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김성수·서형수·제윤경·최은열 의원도 불출마 기류가 강한 상태다.

또 내각에 몸담고 있어 출마가 불투명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이들만으로도 14명의 의원이 사실상 불출마로 가운 상황이다.

여기에 최다선인 6선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거취를 고민하고 있고 무소속인 문

희상 국회의장의 경우 불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 대표적 주류 세력 중 하나인 '86그룹'이 유탄을 맞고 있다. 86그룹 대표주자 가운데 한명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쇄신론에 대한 질문엔 "좀 뒤에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임 전 실장 불출마는)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20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도 TBS 라디오에 출연,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기득권화가 돼

있다고 말한다", "모욕감 같은 것을 느낀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최재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 불출마에서 이어지는 86세대 용퇴론을 질문받자 "민주당은 공천 물갈이가 필요 없는 정당이 됐다. 시스템 공천은 86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86그룹에 속하는 한 다선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야 당에 쇄신을 압박하면서 그만두겠다는 것이지만, 임 전 실장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

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86그룹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86 그룹이 당내 이슈와 혁신의 전면에서 서기 보다는 정치적 양지를 지향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86 그룹은 개혁의 기수에서 이제 혁신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성찰을 통해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패트 수사 시간끌기 안 돼"

민주당 의총... '입당' 손금주 '개혁과제 완수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선거법 처리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동물 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든다. 가능한 한 당으로서 이번 정기국회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혁신 문제와 관련, "지난주에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전반적 수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특히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에서 패스트트

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이상 시간을 끌어서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고도 '대리 조사니 뭐니' 하는 적반하장 관행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5일 민주당에 입당한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해 "지난 탄핵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부여된 개혁과제를 완수하는데 저도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황교안 "총선 패배 땀 물러나겠다"

총선 지휘 의지... 김세연 의원 총사퇴 요구엔 선긋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김세연·김성찬 의원의 최근 불출마 선언을 언급, "한국당과 자유민주진영이 나아가 쇄신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당 쇄신 방안에 대해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다"며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반드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전날 당 내부에서 분출하는 쇄신 요구에 화답하면서도, 내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당 해체',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총사퇴' 등 전날 김세연 의원의 요구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됐다.

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한다. 곧바로 회담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선거법 다음주 본회의 부의... 여야 패트 공방 가열

민주 "한국당 뺀 4당 공조 복원"... 한국당 "야합" 반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나서며 정면돌파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제야당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고 강조하면서 자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는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국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오는 20일 방미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분기점

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방미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도 배제할 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8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날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힘을 합쳤던 군소 야당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국당을 뺀 군소 야당과 별도의 협

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을 합치면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총력 저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

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 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국당은 현재에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으나 합의의 돌파구는 만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방미 기간에 정기국회 최대현안인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 "초당적 협력을" vs 야 "미봉책"

여야, 주52시간제 보완책 놓고 입장차

정부가 18일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 대책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느는 바람직한 변화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준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 쉼, 돌봄의 균형과 장

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제도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및 관련 노동 관계법 개정을 위한 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정부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통령의 체면 살리기에 급급하다"며 "행정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 건물** 광주 남구 주월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306㎡(64.61평) 건물 : 494.4㎡(149.56평) 지상4층 **매매가 9억3천만**원 삼목고 인근 푸른길도서관 앞 공실없음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광주 광산구 고동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장등동 41번지 토지 : 598㎡(180.9평) 건물 : 263.04㎡(79.6평) 지상3층 감정가 4억7천8백만원 최저가 3억3천5백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2백5십만원
- 아 파트** 광주 서구 쌍촌동 푸르지오 47평형 감정가 7억2천1백만원 최저가 5억4백7십만원
- 아 파트** 광주 남구 봉선동 더샵2단지 54평형 감정가 11억2천6백만원 최저가 7억8천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에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3억9천2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3억7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